

# 도시와 농촌의 노부모-자녀의 동거 결정요인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유승주\*\* 이성우\*\*\*

### Keywords

노부모 부양(co-residence for the elderly), 농촌의 고령화(aging in rural society),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 한국(Korea), 미국(the US)

### Abstract

Population aging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many aspects of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to take co-residence for the elderly with their children between Korea and the US. According to a theoretical argument from the mainstream about the living arrangements for the elderly, the theory argues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aged have resulted primarily from an increase in the resources of the aged, which has enabled increasing numbers of the elderly to afford independent living. The opposite argues that the decline of the multi-generational family occurred mainly because of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the young and declining parental control over their children. Adopting the census data of the 1990s and the 2000s from the both countrie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both theories can be applied to the living arrangement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the U.S. The present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studies.

### 차례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연구 방법 및 자료
- 4. 분석 결과
- 5.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BS0157).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석사 및 조경-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교수 및 조경-지역개발연구소 상임연구원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양국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2006년 한국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6). 2005년에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전망이다. 고령화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의 농촌지역은 고령화비율이 이미 25%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해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막강한 권한과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현대적인 측면의 노인문제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박재간, 1995). 당시의 노인들은 가족을 통솔하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중요사를 처리하는 등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다. 한편 농업이 주가 되었던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였으므로 노동력 확보에 용이한 대가족제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대가족제도 하에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성장하고, 생산수단과 가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또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륜에 따라 연장자를 우대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농업사회가 쇠퇴하고 2,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자녀들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했고, 이에 따라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 부양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 대부분의 거주형태가 대가족 형태였으나 산업화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거주비율이 낮아졌음을 밝힌 Ruggles (2001)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 또한 변혁을 겪고 있다. 저출산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노인부양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영향뿐만 아니라 농촌 정주환경의 악화 및 젊은 층의 지속적 이촌향도로 인하여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되었으며(김은경, 2002), 이러한 연유로 노인부양에 관한 논제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과 2000년 한국과 미국의 인구및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부양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구분에 있어 한국의 경우 ‘동=도시, 읍·면=농촌’으로 구분하였고, 미국의 경우 도시지역(metropolitan area)을 도시로, 그리고 비도시지역(non-metropolitan area)을 농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의 노인부양이론을 바탕으로 노인부양모형을 구축하여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노인은 심신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자유로운 환경통제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전체 사회의 약자의 범주에 속하며 의존성이 많은 인구 집단이다(조추용, 2004). 또, 부양이란 국어사전<sup>1</sup>에 의하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아 줌”이라고 되어있다. 유성호 외(2002:209)에 의하면, 노인 부양이란 노인의 객관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주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이 제공하는 도움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고은희(2000)는 자립생계 불능노인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노인부양은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욕구에 대한 사적인 지원과 부양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을 사적인 지원 체계 중에서도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단지 노인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은희(2000)와 김태현 외(1997)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 노화와 질병, 체력 저하로 인한 건강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그리고 사회,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으로 인한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가장 일반적인 노인의 문제로 보았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은 조기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은퇴 후 노인들의 지위는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사상 아래 핵가족화 되어 왔으며,

<sup>1</sup>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4, p.1586

노인들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노년기에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약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는 개인적인 신체부양의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은 신체적 노화에 의한 건강악화 못지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정서적 부양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에 비해 그 대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고은희, 2000).

노인부양의 형태로는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이 있다(고은희, 2000; 조추용, 2004). 공적부양이란 국가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에 의해 행해지는 부양을 말하고, 사적부양이란 가족이나 친족, 친지 및 이웃에 의해서 노인들의 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가족부양과 자기부양으로 나뉘는데, 가족부양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양을 뜻하고, 이러한 가족부양은 다시 형태에 따라서 자녀동거형, 자녀별거형, 노인 복지시설 입소형 등으로 구분된다. 자기부양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했던 사람이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분류는 경제적·물질적 측면의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노인부양 형태를 경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정서적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은희, 2000; 김태현 외1, 1997; 조추용, 2004; 최순남, 1995). 신체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신체적 부양이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일상생활의 보살핌과 수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부양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정서적 부양이란 심리적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고독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양이다. 경제적 부양이나 신체적 부양은 국가나 사회에서도 해결 가능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부양은 가정에서만 해결 가능한 부양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이론적 틀은 산업화를 먼저 겪은 미국 및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노인들의 가구구성 형태가 대가족으로부터 점차 노인부부나 일인노인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은 대가족 안에서 존경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산업화·도시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대가족제도는 더 이상 현대사회의 적합한 가족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Smith, 1981).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Kramarow, 1995). 또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주의와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으로 인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Kramarow, 1995;

Mindel, 1979). 마지막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함께 살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혼자 살거나 부부만 거주하는 노인들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choeni, 1998).

노인 가족형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이론들은 그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학설에 의하면, 노인들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항상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했다고 주장한다(Laslett, 1972). Hareven(1996)은 산업혁명 이전에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대가족 형태를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인들이 단지 그들의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병들어 약해지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그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어려운 경우에 자녀에게 귀속되어 생겨나는 불가피한 가족제도라는 것이다. Kertzer(1995)는 “핵가족 재통합 이론”<sup>2</sup>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부모의 집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부모가 자녀의 집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자들은 대가족 제도안에서의 노인은 항상 의존적인 존재로 보아왔다. (Davis & van den Oever, 1981; Michael, Fuchs, & Scott, 1980; Angel & Tienda, 1982; Pampel, 1983).

Ruggles(2001)는 이러한 기존의 학설과는 조금 다른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자녀들의 경제적 기회, 특히 임금노동시장이 확대되면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제어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부모와 자녀의 동거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감소(농장 등의 농업분야)와 임금을 받는 직업이 증가하면서 노인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젊은 세대들 역시 임금노동시장의 확대로 인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동거 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Ruggles(1994)는 19세기경 미국의 전형적 가족주거 형태가 확장된 대가족형태에서 20세기에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 형태로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Korbrin(1976)과 Burch(1970), 그리고 Hareven(1994)은 인구학적 요인인 출생률과 사망률의 감소가 가족구성원수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Chi et al. (1995)은 노인들의 동거형태에 있어서, 가구 내에서 지위가 가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 수준 및 인종별로 부모와 자녀 간 동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이 가난한 노인에 비

<sup>2</sup> Kertzer(1995)의 본문에서 “nuclear reincorporation theory”라고 표현된 것을 한글로 옮겨온 것이다.

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 민족이 백인에 비해 부모자녀가 동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ertzer(1991) 역시 유럽의 가족형태의 변화가 18C에서 20C 초까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을 야기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Martin(1989)은 아시아의 나라들, 피지, 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대상으로 가족형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Martin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효 등이 서구사회와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이주, 도시화,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세대 간의 거주분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가구구조를 확장된 형태에서 핵가족화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생활의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관심을 갖고 전개되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확대된 가족형태에서 자녀들의 보호를 받는 형태를 가장 선호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의해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노인부양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송다영(2004)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기혼여성의 부양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송다영은 부양의식의 실제, 부양부담과의 관계, 노인부양지원정책에 대한 복지욕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젊은 연령층, 고학력자, 취업여성일수록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정혜(1998)는 농촌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기혼자녀를 중심으로 부모 부양의식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효의식과 부모부양의식은 두 지역 모두 높은 반면, 가족주의 가치관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보다 지역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여, 도시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욱 외(1998)는 자녀들의 노인부양행위가 어떠한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였는데 부양자의 교육수준과 부양대상자의 연령,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석(2005)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지난 10년간의 노후부양관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들의 유무, 거주지역, 경제적 자원 등과 같은 요인들이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영희(1995)는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 노인들의 심리적 행복감은 부모와 자녀 간의 형식적인 접촉이 아니라 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성호(1996)는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

해서 연구하였는데, 주택소유와 자녀와의 별거 희망 여부, 결혼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별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 및 자료

#### 3.1.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량모형은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이다. 이 모형의 수리적 유도과 해석은 이성우 외(2005) 등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내용이므로 추가적인 서술은 피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과 미국의 1980년, 1990년, 2000년 인구센서스 각 2%와 5% 표본<sup>3</sup>이다.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센서스 자료는 신뢰성이 높다는 점과, 다양한 변인들(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주택소유여부, 학력, 직업 등 가구특성과 경제력에 관련된 변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와 18-64세 사이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에 있기 때문에 가족 중 한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와, 18-64세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과정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표본추출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센서스 자료 2%, 5% 샘플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만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자료를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와 거주, 그리고 그 외의 경우로 나누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와 거주만을 선택하였고, 가구수를 45,000가구로 한정하여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0년 자료의 경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가구가 45,000가구에 미달되므로, 2% 전체 표본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2000년 자료의 경우 1990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는 제외시켰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한 최

<sup>3</sup> 우리나라는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미국은 각 연도 PUMS (Public Use Microdata Sample)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자료 추출 과정, 노인

단계	구분	제약조건	1990년		2000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step1	64<연령	한국	전체	36083	100	54741	100
			평균가구원수		3.97		2.99
		미국	전체	1187582	100	1394942	100
			평균가구원수		2.06		2.13
step2	한국	독거노인	6464	17.91	16378	29.92	
		노인부부	2487	6.89	7265	13.27	
		자녀와거주	26253	72.75	29841	54.52	
		그외	879	2.44	1257	2.30	
		합계	36083	100	54741	100	
	미국	독거노인	459359	38.68	483475	34.66	
		노인부부	393719	33.15	408357	29.27	
		자녀와거주	206432	17.38	274309	19.66	
		그외	128072	10.78	228801	16.40	
		합계	1187582	100	1394942	100	
step3	한국	독거노인	4084	11.64	9632	21.40	
		노인부부	4817	13.73	10153	22.56	
		자녀와거주	26181	74.63	25215	56.04	
		합계	35082	100	45000	100	
	미국	독거노인	19522	43.38	18776	41.72	
		노인부부	16714	37.14	15775	35.06	
		자녀와거주	8764	19.48	10449	23.22	
		합계	45000	100	45000	100	
step4	한국	독거노인	4084	11.65	9628	21.40	
		노인부부	4804	13.70	10144	22.55	
		자녀와거주	26181	74.66	25213	56.05	
		합계	35069	100	44985	100	
	미국	독거노인	19522	43.39	18776	41.80	
		노인부부	16714	37.15	15775	35.12	
		자녀와거주	8758	19.46	10372	23.09	
		합계	44994	100	44923	100	



중 자료로서, 설명변수에 결측값(missing)이 있는 자료를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회귀 모형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의 경우 35,069(1990년), 44,985(2000)개, 미국의 경우 44,992(1980년), 44,994(1990년), 44,923(2000년)개이다.

<표 2>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표본추출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된 가구만을 선택하였다. 18세 이하의 경우 부모를 부양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자료에서 가족 중에 1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샘플과 포함되지 않은 샘플로 나누었고, 65세 노인이 포함된 샘플은 다시 노인가구주인 자료와 자녀가구주인 자료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샘플링의 단계이다.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가구가 한국의 경우 약 88%에 달하고, 미국의 경우 약 95%에 달하는 관계로, 그룹에 따라 샘플링의 비율을 다르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노인이 포함된 그룹은 전체 인구의 0.16%,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그룹은 전체 인구의 0.04%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미국의 경우 노인이 포함된 그룹은 전체 인구의 0.05%,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그룹은 전체 인구의 0.005%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또 <표 1>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2000년 자료에서 1990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는 제외시켰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회귀분석을 위한 최종 자료다. 설명변수에 대한 결측값(missing)을 제외시켰을 때, 한국의 경우 58,322(1990년)개와 54,472(2000년)개의 관찰치를, 미국의 경우 54,271(1990년)개와 64,976(2000년)개의 관찰치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자료 추출 과정, 자녀

단계	구분	제약조건	1990년		2000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step1	17<연령<65	한국 전체	218146	100	265420	100
		평균가구원수		3.72		3.22
	미국 전체	3800621	100	4484338	100	
		평균가구원수		2.99		2.91
step2	한국	가족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샘플				
		노인가구주	8974	4.18	9652	3.72
		자녀가구주	16522	7.69	19231	7.42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샘플	189383	88.13	230428	88.86
	합계	214879	100	259311	100	
	미국	가족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샘플				
		노인가구주	150403	4.17	182152	4.33
		자녀가구주	49343	1.37	84057	2.00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샘플	3404315	94.46	3940086	93.67
		합계	3604061	100	4206295	100
step3		한국	가족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샘플			
노인가구주	7129		12.22	7676	11.09	
자녀가구주	13167		22.58	15305	22.12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샘플	38026		65.20	46217	66.79	
합계	58322		100	69198	100	
미국	가족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샘플					
	노인가구주		15193	27.98	17808	27.31
	자녀가구주		4902	9.03	8303	12.73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샘플		34211	63.00	39092	59.95
	합계		54306	100	65203	100
	step4	회귀분석샘플	한국 노인포함가구			
노인가구주			7129	12.22	3706	6.80
자녀가구주			13167	22.58	13031	23.92
비노인가구			38026	65.20	37735	69.27
합계		58322	100	54472	100	
미국		노인포함가구				
		노인가구주	15158	27.93	17581	27.06
		자녀가구주	4902	9.03	8303	12.78
		비노인가구	34211	63.04	39092	60.16
		합계	54271	100	64976	100

### 3.2. 변인설명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와 독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Chatterjee & Price, 1977 ; Kennedy, 1992). 변인팽창계수는 각각의 VIF가 1.0인 직교 자료보다  $\beta$ 가 몇 배가 더 큰 다중공선성 자료 인지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값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들의 선택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추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변인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 3.2.1. 노인모형

노인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이며 독립변인 및 이에 대한 설명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인들은 그 특성에 따라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기타변인으로 나누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결혼유무가 사용되었다. 성별은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으나(유성호, 1993; Tsuya & Martin, 1992), 남성노인들은 가사에 서툰기 때문에 혼자 살기 보다는 부부 또는 자녀와 거주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 자체는 노인주거 형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다(유성호, 1996; Elman & Uhlemberg, 1995). 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타인에 의한 도움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Elman and Uhlemberg(1995)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령에 따른 체감의 법칙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의 제곱(AGE\_SQ) 변수를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Martin, 1989; Lee & Dwyer, 1996).

사회경제학적 변인으로는 주택소유여부,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 주거밀도를 포함시켰다. 유성호(1996)는 그의 연구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주택소유, 교육수준, 소득 등)이 많을수록 개인이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선택할 기회가 높아짐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소유여부와,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이가옥 외(1989)의 연구에서도 주택의 소유상태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고려하였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안정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소유여부를 경제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 노인모형의 변인설명

	변인	설명
종속변인	HOUSTYPE	독거 또는 노인부부 1, 자녀와 거주 0
독립변인		
인구학적변인	GENDER	남자(1), 여자(0)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AGES	나이
	AGES_SQ	나이의 제곱
	MARITAL	유배우자(1), 무배우자(0) (배우자유무)
사회경제학적변인	TENURE	자가(1), 차가(0) (주택소유여부)
	Education	(교육)
	SCHOOL1	중학교이하(0-9grade) (참조집단)
	SCHOOL2	고등학교이하(10-12grade)
	SCHOOL3	대학교(college, bachelor's degree)
	SCHOOL4	대학원 이상(master's degree, doctorate degree)
	JOB	있음(1), 없음(0) (직업의 유무)
	DENSITY	주거밀도(persons/room)
기타변인	REGION	도시(1), 농촌(0) (지역구분)

※ 한국 1980년의 경우, EDU를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 이상으로 분리.  
(중학교 이하가 참조집단)

※ 직업의 유무는 한국 1980년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역 변인으로는 지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이가옥 외(1994)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거주 지역을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시부의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lman & Uhlenberg(1995)의 연구에서도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농촌에 사는 여성들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3.2.2. 자녀모형

본 연구의 자녀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여부이다. 가구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구주를 그 가구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또는 가구 내에서 권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Ruggles & Brower, 2003; Smith, 1981; Kobrin, 1973; 김경혜, 1998; 이가옥 외, 1994), 부모가 가구주일 경우와 자녀가 가구주일 경우로 나누어 가정 내의 주도적인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은 노인모형과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기타변인으로 나누었고 그 설명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과 나이, 결혼유무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아들이 딸보다 노인부양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원영희, 1995). 그러나 서구에서는 딸이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손태홍, 2001). 자녀의 나이는 부모와의 동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한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당연시 해왔던 동양의 규범을 생각해보면 자녀의 결혼유무 역시 부모부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학적 변인으로는 주택소유여부, 가구당 노동자 수, 교육수준, 직업, 주거밀도를 사용하였다. 주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주택구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측정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자가소유여부 또는 주거밀도는 누적된 사회현상과 개인 또는 가구의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회지표가 된다(민성희, 2003). 일반적으로 자가집단은 차가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가소유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Wachter & Megboluger, 1992; Boehm et al., 1999; 하성규, 1999). 직업의 경우, 노인모형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

4 한국은 읍부와 면부를 농촌으로 하였고, 미국은 non-metropolitan을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자녀모형의 변인설명

	변인	설명
종속변인	HOUSTYPE	부모와 거주 1, 부모와 거주하지 않음 0
독립변인		
인구학적변인	GENDER	남자(1), 여자(0) (자녀의 성별)
	Age	(나이)
	AGE18_34	18-34세 (참조집단)
	AGE35_44	35-44세
	AGE45_54	45-54세
	AGE55_64	55-64세
	MARITAL	유배우자(1), 무배우자(0) (배우자의 유무)
사회경제학적변인	TENURE	자가(1), 차가(0) (주택소유여부)
	NUM_WORK	가구당 노동자수
	Education	(교육)
	SCHOOL1	중학교이하(0-9grade) (참조집단)
	SCHOOL2	고등학교이하(10-12grade)
	SCHOOL3	대학교(college, bachelor's degree)
	SCHOOL4	대학원 이상(master's degree, doctorate degree)
	Job	(직업)
	JOB1	전문직, 경영직
	JOB2	일반사무직 (참조집단)
	JOB3	단순노무직
	DENSITY	주거밀도(persons/room)
기타변인	REGION	도시(1), 농촌(0) (지역구분)

※ 한국 1980년의 경우, EDU를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대학 미만, 대학 이상으로 분리.  
(중학교 이하가 참조집단)

※ 가구당 노동자수는 미국의 1980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음.

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직업을 세분화하지 못했지만, 자녀모형에서는 전문직, 일반사무직, 단순노무직으로 나누었고, 일반사무직을 참조집단으로 두었다. 기타 지역변인으로는 노인모형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더미변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부양의 도·농 간 격차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미혼성인자녀들은 18세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한국의 경우, 결혼을 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부모부양이라기 보다는 양육에 가깝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분석자료의 특성상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직계자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불가피한 독거를 따로 통제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 4. 분석 결과

### 4.1. 노인모형

<표 5>와 <표 6>은 1990, 2000년 한국과 미국 노인의 독거 또는 자녀와의 별거요인을 전체, 도시, 농촌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GENDER)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남성은 여성보다 재혼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Soldo & Lauriat, 1976) 남성의 경우 독거보다는 배우자와 거주할 확률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AGE)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확률은 체감(AGES\_SQ)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MARITAL)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와 거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결과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있어 1990년, 2000년의 결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있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TENURE)이 자녀와 분리해서 살 가능성은 차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Ruggles (1994)가 주장하듯이 경제력이 높은 노인가구가 자녀와의 동거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교육수준과 직업의 유무는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표 5.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요인, 한국

변인	199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20.4784 ***	2.4181	-22.1284 ***	3.7865	-20.7042 ***	3.1906
GENDER	0.5746 ***	0.0532	0.7713 ***	0.0732	0.3672 ***	0.0780
AGES	0.6710 ***	0.0654	0.6872 ***	0.1030	0.6711 ***	0.0858
AGES_SQ	-0.0046 ***	0.0004	-0.0048 ***	0.0007	-0.0046 ***	0.0006
MARITAL	0.8302 ***	0.0536	0.8025 ***	0.0733	0.8982 ***	0.0791
TENURE	-1.6533 ***	0.0443	-1.7540 ***	0.0542	-1.4359 ***	0.0845
SCHOOL2	-0.3126 ***	0.0822	-0.3769 ***	0.0922	-0.1671	0.1950
SCHOOL3	-0.5312 ***	0.0946	-0.6040 ***	0.1024	-0.4030	0.2972
SCHOOL4	-0.3154	0.3154	-0.2918	0.3227	-12.0185	176.4000
JOB	0.5752 ***	0.0412	0.5783 ***	0.0707	0.5922 ***	0.0519
DENSITY	-2.9852 ***	0.0389	-3.0086 ***	0.0592	-2.9637 ***	0.0517
REGION	-1.1198 ***	0.0374				
N	35069		19093		15976	
-2LL						
Intercept only	39704.17		17949.77		20529.97	
With covariates	24628.43		11737.58		12855.60	
Max-rescaled R_square	0.5156		0.4557		0.5273	
변인	200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20.7796 ***	1.6342	-24.7095 ***	2.4368	-17.5724 ***	2.2403
GENDER	0.5427 ***	0.0438	0.6184 ***	0.0599	0.3788 ***	0.0657
AGES	0.6762 ***	0.0439	0.7707 ***	0.0658	0.5537 ***	0.0597
AGES_SQ	-0.0046 ***	0.0003	-0.0053 ***	0.0004	-0.0038 ***	0.0004
MARITAL	1.1773 ***	0.0455	1.0118 ***	0.0612	1.2841 ***	0.0707
TENURE	-0.8893 ***	0.0305	-1.0799 ***	0.0368	-0.3775 ***	0.0611
SCHOOL2	-0.3453 ***	0.0451	-0.3461 ***	0.0540	-0.2267 **	0.0931
SCHOOL3	-0.4701 ***	0.0547	-0.5239 ***	0.0626	-0.0750	0.1495
SCHOOL4	-0.8408 ***	0.1475	-0.9697 ***	0.1594	0.1678	0.5534
JOB	0.6533 ***	0.0311	0.4233 ***	0.0511	0.6610 ***	0.0400
DENSITY	-2.6950 ***	0.0296	-3.4686 ***	0.0467	-2.0845 ***	0.0417
REGION	-1.4643 ***	0.0291				
N	44985		26772		18213	
-2LL						
Intercept only	61702.74		34704.86		24896.27	
With covariates	43045.19		22350.69		19853.06	
Max-rescaled R_square	0.4549		0.5088		0.3246	

\*\*\* p&lt;.01 \*\*p&lt;.05 \*p&lt;.10



표 6.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요인, 미국

변인	199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14.0580 ***	1.8891	-15.1114 ***	2.1177	-11.9072 ***	4.2210
GENDER	0.5190 ***	0.0478	0.4870 ***	0.0532	0.6960 ***	0.1097
AGES	0.5173 ***	0.0499	0.5385 ***	0.0560	0.4583 ***	0.1115
AGES_SQ	-0.0032 ***	0.0003	-0.0034 ***	0.0004	-0.0028 ***	0.0007
MARITAL	1.5691 ***	0.0514	1.5013 ***	0.0568	1.9206 ***	0.1209
TENURE	-2.4896 ***	0.0546	-2.6149 ***	0.0615	-1.8260 ***	0.1152
SCHOOL2	0.2351 ***	0.0371	0.1938 ***	0.0425	0.3285 ***	0.0780
SCHOOL3	0.2547 ***	0.0465	0.2219 ***	0.0518	0.3404 ***	0.1104
SCHOOL4	0.1064	0.0841	0.0759	0.0912	0.2219	0.2271
JOB	-0.2424 ***	0.0356	-0.2190 ***	0.0400	-0.3825 ***	0.0797
DENSITY	-9.4785 ***	0.1130	-9.1237 ***	0.1227	-11.5273 ***	0.2906
REGION	-0.3006 ***	0.0376	***			
N	44994		33915		11079	
-2LL						
Intercept only	44354.47		34720.34		9460.06	
With covariates	28367.73		22367.96		5829.48	
Max-rescaled R_square	0.4771		0.4764		0.4866	
변인	200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0.5109	1.4743	-0.6891	1.6403	-0.7297	3.4405
GENDER	0.5580 ***	0.0423	0.5322 ***	0.0466	0.6788 ***	0.1015
AGES	0.1485 ***	0.0384	0.1400 ***	0.0427	0.1759 **	0.0895
AGES_SQ	-0.0008 ***	0.0002	-0.0008 ***	0.0003	-0.0010 *	0.0006
MARITAL	1.4295 ***	0.0456	1.3196 ***	0.0500	2.0800 ***	0.1137
TENURE	-2.6025 ***	0.0543	-2.6283 ***	0.0598	-2.2984 ***	0.1226
SCHOOL2	0.2781 ***	0.0390	0.2988 ***	0.0451	0.1942 **	0.0811
SCHOOL3	0.4447 ***	0.0453	0.4649 ***	0.0509	0.4069 ***	0.1074
SCHOOL4	0.3935 ***	0.0711	0.4624 ***	0.0773	-0.0100	0.1872
JOB	-0.1537 ***	0.0302	-0.1695 ***	0.0337	-0.0758	0.0701
DENSITY	-8.4030 ***	0.0989	-7.8129 ***	0.1047	-12.0579 ***	0.2889
REGION	-0.3290 ***	0.0353				
N	44923		33863		11060	
-2LL						
Intercept only	48547.59		38028.03		10246.77	
With covariates	31257.43		24942.62		5995.76	
Max-rescaled R_square	0.4836		0.4751		0.5283	

\*\*\* p<.01 \*\*p<.05 \*p<.10

한국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SCHOOL2, SCHOOL3, SCHOOL4)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이 있는 노인의 경우(JOB) 한국은 자녀와 따로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밀도(DENSITY)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가능성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REGION)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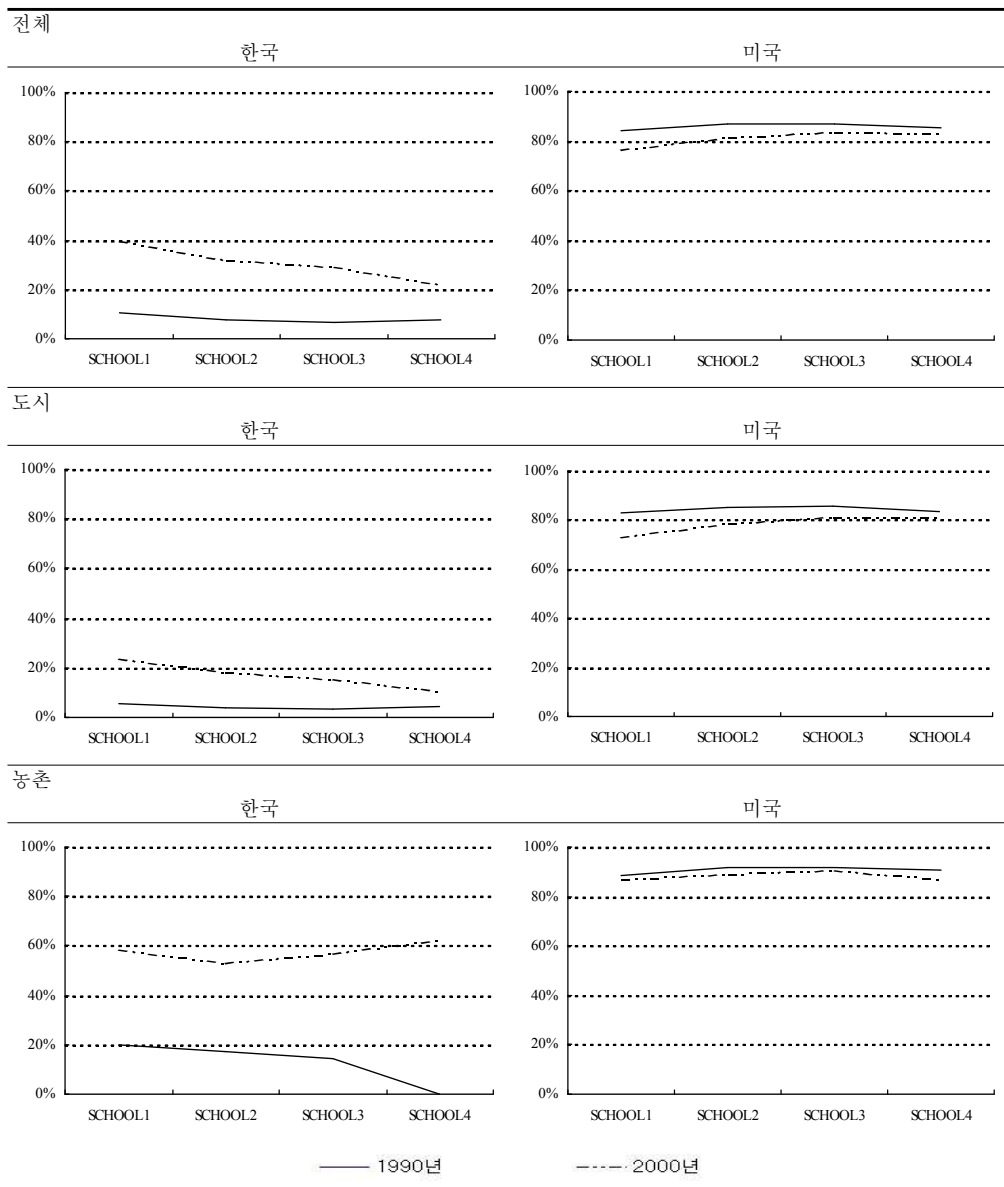
<그림 1>은 <표 5>에 있는 모형의 결과에 기초해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한국 노인의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은 미국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높아졌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경우가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거 또는 노인부부만 거주할 확률은 학력수준별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한국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 확률은 10.45%였으나, 대학원 이상일 때는 7.84%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독거 또는 노인 부부만 거주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2000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1990년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40.02%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 집단일 때에는 22.3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중학교졸업 이하 집단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83.97%로 나타났고, 대학원졸업 이상일 때에는 85.35%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에는 중학교졸업 이하 집단의 독거 또는 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76.58%로 나타났고,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 집단은 82.90%로 나타나, 2000년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 때 독거 또는 노인부부만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수준이 소득수준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혼자 살거나 부부만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경향과 일치하고 있는데, Hareven(1994)에 의하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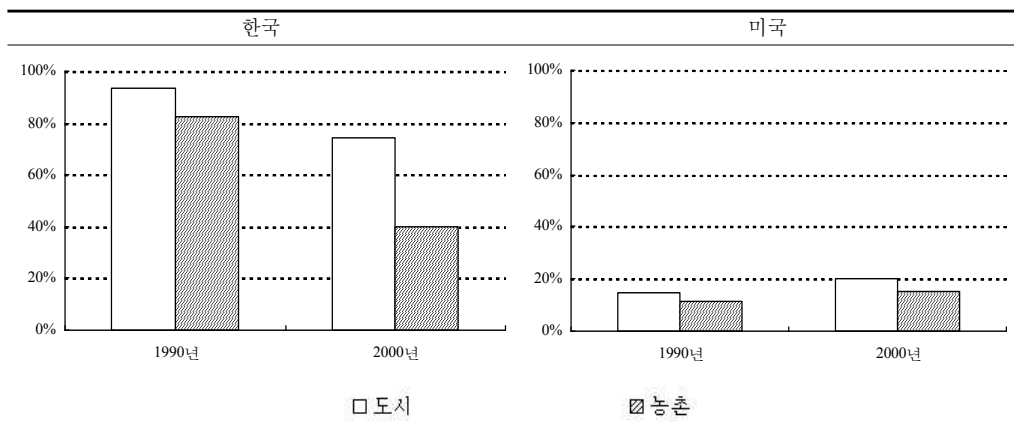
으로 경제력 있는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 Ruggles(2001)의 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가족 형태가 우세하였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면서 부모의 선호에 의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와의 동거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a, 1997; Kramarow, 1995).

그림 1.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독거 또는 노인부부 확률



<그림 2>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별로 노인 가구의 자녀와의 거주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한국의 도시(Urban)와 농촌(Rural)의 격차가 미국의 격차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양국에서 모두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노인과 자녀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농촌지역에서의 젊은 층의 급속한 이촌향도로 인하여 농촌에는 함께 거주할 자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촌 노인들은 필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한경혜·윤순덕, 2001; 서병숙·이신숙, 1991). 일반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가치관이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젊은층의 급속한 이농현상의 결과라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이가옥 외, 1994). 두 번째, 도시의 주택가격이 농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노인이 농촌에 사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의 동거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유성호, 1996).

그림 2. 지역에 따른 노인의 자녀와의 거주확률



#### 4.2. 자녀모형

<표 7>과 <표 8>은 한국과 미국의 1990년, 2000년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요인에 대한 결과이다. 1990년에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남성이 부모와 거주할 확률(GENDER)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2000년의 경우에는 도시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와의 동거에 정(+)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할 확률은

표 7.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요인, 한국

변인	199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1.7107 ***	0.0459	-2.1094 ***	0.0513	-1.8532 ***	0.0934
GENDER	-0.6812 ***	0.0299	-0.5960 ***	0.0367	-0.9364 ***	0.0532
AGE35_44	0.2134 ***	0.0274	0.3814 ***	0.0321	-0.2543 ***	0.0563
AGE45_54	0.2130 ***	0.0292	0.4857 ***	0.0350	-0.4645 ***	0.0565
AGE55_64	0.0410	0.0340	0.5240 ***	0.0427	-0.8994 ***	0.0613
MARITAL	0.0724 **	0.0296	-0.0283	0.0364	0.3466 ***	0.0528
TENURE	1.3944 ***	0.0239	1.2086 ***	0.0267	2.0956 ***	0.0607
NUM_WORK	0.2178 ***	0.0120	0.1374 ***	0.0149	0.3083 ***	0.0212
SCHOOL2	-0.0008	0.0241	0.0396	0.0289	0.0080	0.0460
SCHOOL3	-0.0108	0.0310	0.1147 ***	0.0350	-0.2640 ***	0.0801
SCHOOL4	-0.0172	0.0730	0.1507 **	0.0758	-0.7277 **	0.3416
JOB1	0.4292 ***	0.0252	0.3461 ***	0.0292	0.5342 ***	0.0544
JOB3	-0.0856 ***	0.0311	-0.0205	0.0350	-0.2969 ***	0.0708
DENSITY	0.2469 ***	0.0115	0.2483 ***	0.0134	0.2126 ***	0.0232
REGION	-0.3923 ***	0.0228				
N	58322		41801		16521	
-2 Log Likelihood						
Intercept only	75375.255		50470.678		22896.809	
With covariates	66838.405		45995.125		20263.787	
Max-rescaled R_square	0.1877		0.1448		0.1965	
변인	200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2.5222 ***	0.0552	-3.0700 ***	0.0621	-2.3482 ***	0.1099
GENDER	0.0550	0.0351	0.1638 ***	0.0425	-0.2831 ***	0.0650
AGE35_44	0.5830 ***	0.0312	0.6518 ***	0.0361	0.3675 ***	0.0666
AGE45_54	0.7155 ***	0.0348	0.9033 ***	0.0402	0.1348 *	0.0735
AGE55_64	0.4123 ***	0.0417	0.8125 ***	0.0511	-0.4464 ***	0.0791
MARITAL	-1.2244 ***	0.0322	-1.3905 ***	0.0386	-0.7917 ***	0.0602
TENURE	1.3247 ***	0.0246	1.2218 ***	0.0276	1.8222 ***	0.0611
NUM_WORK	0.3424 ***	0.0139	0.2182 ***	0.0170	0.5477 ***	0.0258
SCHOOL2	-0.0108	0.0276	-0.0147	0.0342	0.0164	0.0495
SCHOOL3	0.1050 ***	0.0332	0.1922 ***	0.0387	-0.2022 ***	0.0737
SCHOOL4	0.2211 ***	0.0587	0.3012 ***	0.0632	-0.2065	0.2053
JOB1	0.1233 ***	0.0311	0.1861 ***	0.0334	-0.2321 ***	0.0864
JOB3	0.0672 *	0.0374	0.0347	0.0436	0.1013	0.0766
DENSITY	0.6674 ***	0.0185	0.8059 ***	0.0221	0.3298 ***	0.0347
REGION	-0.4678 ***	0.0244				
N	54472		41490		12982	
-2 Log Likelihood						
Intercept only	67206.438		47717.989		17877.868	
With covariates	58728.107		42772.779		15375.213	
Max-rescaled R_square	0.2034		0.1644		0.2345	

\*\*\* p<.01 \*\*p<.05 \*p<.10

표 8.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요인, 미국

변인	199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1.4497 ***	0.0574	-1.4579 ***	0.0615	-1.0372 ***	0.1174
GENDER	-0.7654 ***	0.0230	-0.7318 ***	0.0256	-0.9074 ***	0.0523
AGE35_44	0.2952 ***	0.0284	0.3106 ***	0.0315	0.2338 ***	0.0656
AGE45_54	0.4618 ***	0.0306	0.4559 ***	0.0342	0.4766 ***	0.0695
AGE55_64	0.8740 ***	0.0326	0.8785 ***	0.0364	0.8480 ***	0.0740
MARITAL	-2.1140 ***	0.0278	-2.0833 ***	0.0311	-2.2342 ***	0.0630
TENURE	1.5313 ***	0.0278	1.5409 ***	0.0307	1.4539 ***	0.0659
NUM_WORK	0.4702 ***	0.0132	0.4874 ***	0.0147	0.3954 ***	0.0307
SCHOOL2	-0.3519 ***	0.0386	-0.2802 ***	0.0450	-0.5272 ***	0.0756
SCHOOL3	-0.5965 ***	0.0417	-0.5320 ***	0.0480	-0.7611 ***	0.0858
SCHOOL4	-0.6124 ***	0.0587	-0.5463 ***	0.0649	-0.7835 ***	0.1505
JOB1	-0.2682 ***	0.0314	-0.2945 ***	0.0339	-0.1244	0.0829
JOB3	0.3451 ***	0.0245	0.3362 ***	0.0275	0.3802 ***	0.0541
DENSITY	0.8530 ***	0.0308	0.8479 ***	0.0333	0.9115 ***	0.0824
REGION	0.1126 ***	0.0260				
N	54271		43427		10844	
-2 Log Likelihood						
Intercept only	71502.759		57225.491		14277.225	
With covariates	56882.112		45642.921		11166.90	
Max-rescaled R_square	0.3225		0.3197		0.3407	
변인	2000년					
	전체		도시		농촌	
	coeff.	s.e	coeff.	s.e	coeff.	s.e
INTERCEPT	-1.9765 ***	0.0563	-1.8780 ***	0.0598	-1.4614 ***	0.1207
GENDER	-0.4340 ***	0.0200	-0.4039 ***	0.0222	-0.5741 ***	0.0459
AGE35_44	0.5658 ***	0.0270	0.5981 ***	0.0300	0.4302 ***	0.0620
AGE45_54	0.7972 ***	0.0274	0.8189 ***	0.0305	0.7128 ***	0.0632
AGE55_64	1.0109 ***	0.0306	1.0216 ***	0.0342	0.9784 ***	0.0694
MARITAL	-1.8466 ***	0.0243	-1.7803 ***	0.0270	-2.1226 ***	0.0564
TENURE	1.4199 ***	0.0245	1.4039 ***	0.0269	1.4396 ***	0.0594
NUM_WORK	0.4955 ***	0.0120	0.5121 ***	0.0133	0.4271 ***	0.0282
SCHOOL2	-0.2755 ***	0.0408	-0.1717 ***	0.0463	-0.5950 ***	0.0872
SCHOOL3	-0.5191 ***	0.0422	-0.4375 ***	0.0476	-0.7609 ***	0.0923
SCHOOL4	-0.6179 ***	0.0531	-0.5218 ***	0.0584	-0.9899 ***	0.1364
JOB1	-0.2487 ***	0.0254	-0.2663 ***	0.0276	-0.1348 **	0.0653
JOB3	0.3047 ***	0.0217	0.3092 ***	0.0244	0.2981 ***	0.0481
DENSITY	0.8343 ***	0.0239	0.8092 ***	0.0254	1.0141 ***	0.0729
REGION	0.2456 ***	0.0230				
N	64976		52088		12888	
-2 Log Likelihood						
Intercept only	87372.20		70303.075		17025.67	
With covariates	72546.40		58486.362		13905.40	
Max-rescaled R_square	0.2759		0.274		0.2933	

\*\*\* p<.01 \*\*p<.05 \*p<.10

35-5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AGE35-44, AGE45-54), 연령이 높거나 낮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의 경제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연령층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저연령층은 경제적 여력이 낮거나 아직 취학 연령대에 있는 인구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유무(MARITAL)가 부모와의 동거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의 농촌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거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2000년에는 도시와 농촌 모두 유배우자가 오히려 부모와의 동거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결혼한 자녀로부터의 부모 부양이 당연시 되어 왔고, 이러한 유교의 효사상에 의해서 1990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서구화와 핵가족화가 더욱 가속화된 2000년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과 2000년 모두에 있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녀(TENURE)는 차가에 거주하는 자녀에 비해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 농촌 모두에 동일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소유여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있어서 가구당 노동자수(NUM\_WORK)가 증가할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여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동거할 여유가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수준이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미국이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의 경우(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저학력의 자녀(참조집단)보다 고학력의 보유한 자녀(SCHOOL2-4)의 부모와의 동거확률이 낮게 나타난 반면, 2000년의 경우에는 고학력일수록 부모와의 동거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 2000년 모두에 있어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동거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8 참조).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경우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직업 역시 부모와의 동거수준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자녀

의 경우(JOB1) 노무직(JOB3) 또는 일반사무직(참조집단)에 비해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들의 부모와의 동거확률은 일반사무직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있어서 가구밀도가 높은 가구에 거주하는 자녀(DENSITY)일수록 부모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과 2000년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REGION)의 부모와의 동거확률은 농촌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표7 참조),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확률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8 참조).

지금까지 살펴 본 자녀의 부모와의 거주 확률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주거환경적 특성별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도시와 농촌별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상이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농촌과 도시별로 가장 큰 상이성을 보이고 있는 학력수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비교를 위해 자녀들의 학력수준별로 부모와의 동거효과를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한국과 미국의 자녀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부모와의 거주확률의 변화분을 나타내는 한계효과 그래프이다.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한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거주할 한계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보다는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이 부모와의 동거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리라 판단된다. 학력수준별 한계효과의 체증은 도시지역

그림 3. 자녀의 학력별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한계효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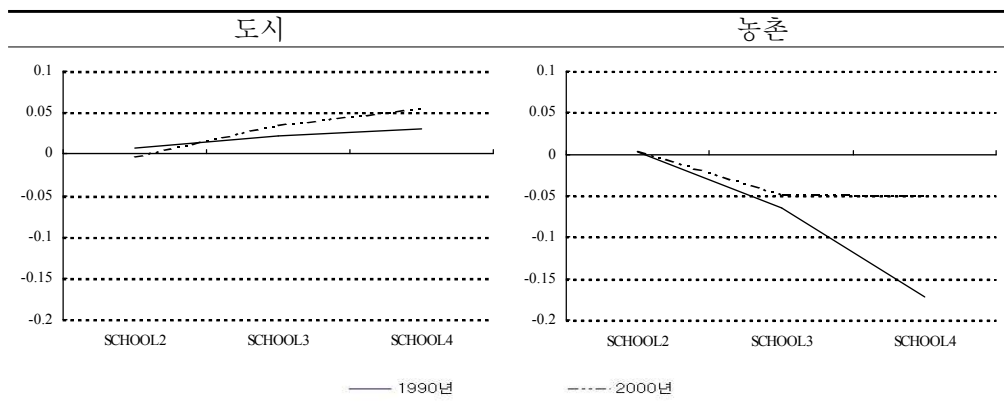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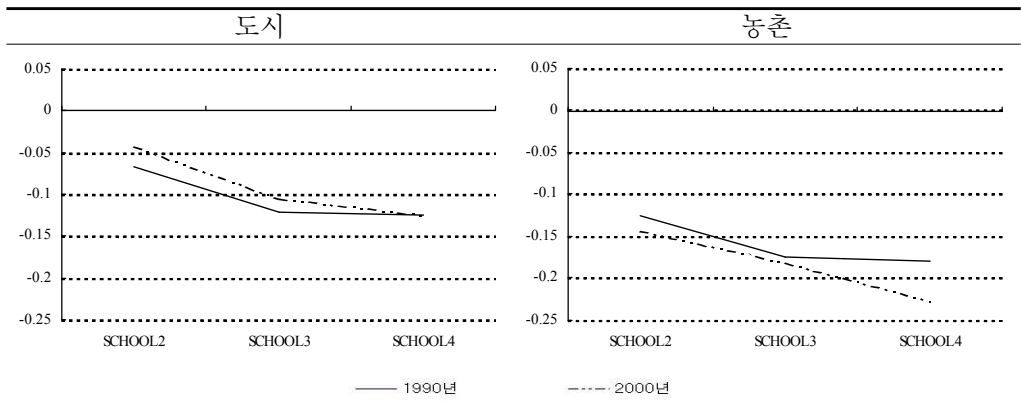




그림 4. 자녀의 학력별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한계효과, 미국



의 경우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1990년에 비해 2000년의 한계효과의 체감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자녀의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동거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의 체감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참조). 교육수준이 경제적 능력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우 Ruggles(1994)가 주장하듯이 자녀소득기회의 증대가 부모와의 동거필요성의 감소로 귀결된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1990년과 200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해당 년도의 한국과 미국이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한국의 경우, 도시·농촌을 통합한 행정시의 출현으로 ‘동=도시, 읍·면=농촌’으로 구분하였고, 미국의 경우 도시지역(metropolitan area)을 도시로, 그리고 비도시지역(non-metropolitan area)을 농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인부양이론을 바탕으로 노인부양모형을 구축하여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한국과 미국

의 노인 및 자녀의 동거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이항로짓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과, 18~64세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녀모형으로 나누어 한국과 미국의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모형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큰 차이점을 보인 부분은 학력(SCHOOL2, SCHOOL3, SCHOOL4)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 이와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경향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 위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들의 필요에 의한 동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자녀모형에서의 교육수준(SCHOOL2, SCHOOL3, SCHOOL4) 역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도시에서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에서는 학력이 높아지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없이 학력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부모부양을 중시하는 효(孝)사상의 이입이 저학력층에 비해 더욱 강한테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인모형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도시(REGION)에 사는 노인들이 농촌에 사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모형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미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에 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현상으로 젊은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로 인한 농촌 고령화의 심각한 현실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농촌보다 도시의 지가가 비싸다는 측면에서 주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높은 것이 또다른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되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농촌지역은 고

령화비율이 약 27%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사회현상이라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부양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인과 자녀의 동거에 관한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연구,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적 변화 등과 같은 정책적,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고은희. 2000. 「현대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 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07-122.
- 김상욱, 양철호. 1998.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 구조 모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5: 51-83.
- 김은경. 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27-36.
- 김정석. 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1-11.
- 김태현, 전길양. 1997.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민성희. 2003. 「서울 거주가구의 출신지역별 주거복지수준 격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간 등. 1995. “오늘의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41-53. 나남출판.
- 서병숙, 이신숙. 1991. “농촌 기혼여성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11(2): 191-211. 한국노년학.
- 손태홍. 2001. “노인부양의 현실과 그 새로운 방향: 199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39(11): 27-42. 대한가정학회지.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19: 207-233. 사회복지정책.
- 원영희. 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5(2): 97-116. 한국노년학.
- 유성호. 1993. “재미 한국 노인과 자녀 간의 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2): 98-119. 한국노년학.
- \_\_\_\_\_. 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16(1): 51-68. 한국노년학.
- 유성호 등. 2002. 「노인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이가옥, 김형수, 권중돈, 권선진, 안혜영, 정운자. 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가옥, 서미경, 고경환, 박종돈. 1994.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우, 민성희. 2002. “주거밀도로 측정된 출신지역별 주거수준 차이, 1990-2000.” 37(7):

137-155. 국토계획.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조추용. 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24. pp. 71-99.

최순남. 1995.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12: 497-534. 한신논문집.

최정혜. 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14(2): 25-36. 한국 노년학.

\_\_\_\_\_. 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18(2): 47-63. 한국노년학.

통계청 완전생명표 (각세별)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42&IDTYPE=3&A\\_LANG=1&FPUB=3&SELITEM=3](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B42&IDTYPE=3&A_LANG=1&FPUB=3&SELITEM=3)>.

하성규. 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한경혜, 윤순덕. 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21(2): 163-178. 한국노년학.

#### <국외문헌>

Angel, R. and Tienda, M. 1982. “Determinants of Extended Household Structure: Cultural Pattern or Economic Need?”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6): 1360-1383.

Boehm, T. P. and A. M. Schlottmann. 1999. “Does Home Ownership by Parents Have an Economic Impact on Their Children?”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8. pp. 217-232.

Burch, T. K. 1970. “Some Demographic Determinants of Average Household Size: An Analytic App. roach.” *Demography* 7(1): 61-69.

Chatterjee, S., and B. Price. 1977.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John Wiley & Sons.

Chi, P. and K. Kim. 1995. “A Comparative Study of Living Arrangements Among White, Black, Hispanic and Asian-American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Working Papers Series No. 95-04*, Cornell University.

Costa, D. L. 1997. “Displacing the Family: Union Army Pensions and Elderly Living Arrangement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269-1292.

Davis, Kingsley and Pietronella van den Oever. 1981. “Age Relations and Public Policy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7(1): 1-18.

Elman C. and Uhlenberg P. 1995. “Co-residenc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lderly Wome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hildren.” *Population Studies* 49(3): 501-517.

Hareven, T. K. 1982. “Household organization and the timing of life transitions.” *Family Time & Industrial Time*. pp. 154-188.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4.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A Historical and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0. pp. 437-461.

\_\_\_\_\_. 1996. “Introduction: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over the life course.” in *Aging and Generational Relations over the Life Course: A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

- Hareven, T. K., ed. pp. 1-12. Berlin: de Gruyter.
- Haurin, D. R., Hendershott, P. H., Kim, D. W. 1993. "The Impact of Real Rents and Wages on Household Form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2): 284-293.
- Kennedy, P. 1992. *A Guide to Econometrics (3rd ed.)*. MIT Press.
- Kertzer, D. I. 1991. "Household History and Sociological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7. pp. 155-179.
- \_\_\_\_\_. 1995. "Toward a historical demography of aging." in *Aging in the Past: Demography, Society and Old Age*. David I. Kertzer and Peter Laslett, eds. pp. 363-38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brin, F. E. 1973. "Household Headship and Its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1940-1960, 1970."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68. pp. 793-800.
- \_\_\_\_\_. 1976.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3(1): 127-138.
- Kramarow, E. A. 1995.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Perspectives on Household Change." *Demography* 32(3): 335-352.
- Laslett, P. 1972. "Introduction." in *Household and Family in Past Time*, Peter Laslett and Richard Wall ed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G. R. and Dwyer, J. W. 1996. "Aging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Further Evidence on the Role of Parental Dependency."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45-59.
-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L. G. 1989.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3.
- Michael, R. T., Fuchs, V. R., and Scott, S. R. 1980.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Live Alone: 1950-1976." *Demography* 17(1) 39-56.
- Mindel, C. H. 1979. "Multigenerational Family Households: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19. pp. 456-463.
- Pampel, F. C. 1983.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Live Alone: Evidence from Consecutive Cross-Sectional Surveys, 1960-1976." *Demography* 20(4): 433-447.
- Roncek, D. W. 1991. "Using Logit Coefficients to Obtain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Changes Probabilities." *Social Forces*, 70. pp. 509-518.
- Ruggles, S. 1994.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Family Struc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9(1) 103-128.
- \_\_\_\_\_. 2001. "Living Arrangements and Well-being of Older Persons in the Past." in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Critical Issues and Policy Responses*, Special Issue Nos. 42/43.
- Ruggles, S. and Brower, S. 2003. "Measurement of Household and Family Com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1850-200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1): 73-101.

- Schoeni, R. F. 1998. "Reassessing the Decline in Parent-Child Old-Age Coresidence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Demography* 35(3): 307-313.
- Smith, D. S. 1981. "Historical Change in the Household Structure of the Elderly in Economically Developed Societies." R. W.
- Soldo, B., and Lauriat, P. 1976.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A loglinear approach."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7. pp. 351-366.
- Wachter, S. M. and I. F. Megbolugbe. 1992.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Homeownership." *Housing Policy Debate*, 3. pp. 333-370.

원고 접수일: 2007년 5월 17일
원고 심사일: 2007년 5월 25일
심사 완료일: 2007년 9월 20일